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예배
창세기 22:9-14
2026 년 11 월 15 일 오전 11 시

순종으로 증명되는 믿음

< 주여 도우소서 >

영화에서 흥분이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는 장면을 '클라이맥스(Climax)'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 편의 영화로 만든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장면이 클라이맥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극적인 사건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창 22:2).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을 번제물로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1 절). 그런데 1 절은 '그 일 후에'라는 시간적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일들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앞장인 창세기 21 장에 기록된 여러 사건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주목할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요구에 따라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 일로 매우 근심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창 21:11).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창 21:13).

1.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순종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면서 이스마엘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한 민족으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마엘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삭을 떠나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후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것일까요? 12 절과 연관지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지 알아보시기 위해 시험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단순히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이었으며, 아브라함의 미래와 소망이 걸려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본부터 흔들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아브라함은 3 절과 같이 반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창 22:3).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유를 묻거나 명령을 거부하였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는 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길을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까지 미리 준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길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멀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장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삼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4 절).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땅까지 여행하는 사흘 동안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삼일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삼일은 굳게 결심했던 마음이 흔들리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땅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갔겠습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사흘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전승에는 사탄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을 세 차례 방해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먼저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늙은 나이에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 와서 아무 죄도 없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다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실 수 있겠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런 악한 일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시오." 다음에는 젊은이의 모습으로 나타나 이삭에게 아버지를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늙은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데리고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소? 아버지의 말을 듣지 마시오. 귀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마지막에는 큰 강물이 나타나게 하여 아브라함과 이삭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후대 유대교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의심과 불신,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5 절). 여러분, 아브라함은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2.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는 믿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처럼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창 21:12).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앞서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습니다. 이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한 민족으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듯이, 이삭을 통해 후손을 이어 가시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히 11:19).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라도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나귀에서 내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창 22:6). 여기서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번제로 드리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산을 올라가던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7 절).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8 절).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욱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의 대답을 들은 후에도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산을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라고 기록합니다. 이삭에게 모든 의문이 해결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걸음을 계속하였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장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벌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9 절).

여러분,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지고 산을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성장하였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미 백 세였습니다. 따라서 이삭이 저항하였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의 행동을 받아들였을까요? 성경은 이삭이 결박당하는 순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에도 이삭이 저항하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버지가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 순종으로 증명된 믿음

오늘 주보 표지에 실린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조의 「이삭의 희생」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한 손으로 이삭의 머리를 강하게 누르고 다른 손으로 칼을 쥐고 있습니다. 이삭은 입을 크게 벌리고 비명을 지르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카라바조는 이삭이 처음에는 아버지를 믿고 따랐지만, 막상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자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는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머리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실제로 죽음에 직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이삭이 비명을 질렀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카라바조의 성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을 생생하게 보여 줍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을 수도 있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11 절). 하나님의 사자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12 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숫양 한 마리가 수풀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13 절). 아브라함은 숫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산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한 후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14 절).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리아산에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났고,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참된 믿음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도 순종하였습니다. 두 사건 모두 아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바치는 시험은 더욱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에 그치지 않고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